



## Ⅲ. 주요 산업

### 1. 농업

#### 가. 농업 환경

##### □ 지리적 환경

- 필리핀은 총 면적이 30만 km<sup>2</sup>(약 3,000만 ha)로 남한의 약 3배 정도이며,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 연중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로 연중 평균 습도는 75~86%, 평균 온도는 19.2~28.2℃, 평균 강수량은 914~4,358mm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2~3모작이 가능함.
- 6~12월에는 열대성 저기압인 사이클론의 영향을 받는데, 주로 7~9월에 집중되며 월 2회 이상의 사이클론이 필리핀에 영향을 미침.

##### □ 농경지 환경

— 필리핀 농업통계국(Bureau of Agricultural Statistics: BAS)의 2008년 농업경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농지면적은 967만 ha이며, 이 중 경작지는 494만 ha, 영구 경지는 422만 ha, 영구 목초지는 13만 ha, 삼림지는 7만 ha, 기타 31만 ha임.

· 필리핀의 주요 작물로서 벼(palay)가 446만 ha, 옥수수가 266만 ha, 코코넛이 338만 ha의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음.

— 1980년대까지 주요 곡물인 쌀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개 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로 정부의 투자가 감소하여 농지면적 중 약 16% 정도인 152만 ha 관개수리 시설이 갖추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음.

## 나. 농업 현황

### □ 일반현황

— 필리핀 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의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은 총 고용인구의 약 35%인 1,203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60~70년대 농업이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필리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최근 비중은 많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필리핀 총 GDP의 18%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

<표 III-1> 필리핀의 농업인구 현황

단위 : 만 명,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인구 <sup>주)</sup>	1,138	1,163	1,181	1,179	1,203
비 중	36.0	36.0	35.8	35.1	35.3
총 고용인구	3,161	3,231	3,296	3,356	3,409

주 :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포함  
 자료 : National Statistics Office

— 필리핀 농업은 영세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구당 평균 2ha의 농경지를 생계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소유임대하여 경작하고 있음. 1988년부터 시행된 농지개혁에 따라, 가구당 5ha 이상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소규모 농가들의 비율이 증가되었음.

· 1986년 민중혁명으로 아키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포괄적 농지개혁법(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Law: CARL)<sup>1)</sup>에 따라, 1988년부터 시행된 ‘포괄적 농지개혁계획(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Program: CARP)’은 농가 1가구당 농지 소유한도를 5ha(자녀 1인당 3ha 추가 보유 가능)로 제한하였음.

· 수혜계층은 농민과 농장 노동자였고, 당시 농지의 55% 가량이 동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로 인해 단위 경작규모가 소규모화 되고 농가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농업이 후퇴하게 됨.

1) 공화국법 제6657호(Republic Act 6657)

· 동법의 광범위한 예외조치로서 기업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토지 이전이 아니라 주식 이전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농장 지주는 기업 설립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하였음.

— 농지개혁 이전에는 개인이 고무, 커피, 팜유, 카카오, 바나나, 파인애플 등을 재배하는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였으나, 현재는 무제한으로 토지 소유가 가능한 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바나나, 토마토, 오이, 팜유, 아스파라거스 및 구이용 닭 등을 재배 및 사육하고 있음.

#### □ 생산현황

— 필리핀의 주요 농산물은 쌀, 옥수수, 코코넛,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등으로 이 중 쌀과 옥수수 등은 국내 소비용 식량 작물이며, 기후 특성상 풍부하게 생산되는 코코넛,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등은 수출용 작물임.

— 쌀은 전국적으로 생산되지만 주로 중부 루손, 중부 민다나오, 네그로스, 파나이 등 서쪽 비사야 제도에서 많이 생산됨. 필리핀의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매년 2% 이상 증가하는 인구 증가율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점차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175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Ⅲ. 주요 산업

<표 Ⅲ-2> 필리핀의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천 톤

품 목	2005	2006	2007	2008
쌀	9,550	10,024	10,621	10,997
코 코 너트	14,825	14,958	14,853	15,320
바 나 나	6,298	6,795	7,484	8,688
사탕수수	31,400	31,550	32,500	26,601
파인애플	1,788	1,834	2,016	2,209
옥 수 수	5,253	6,082	6,737	6,928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1,003	919	1,024	884
카 사 바	1,678	1,757	1,871	1,942
커 피	106	104	98	97

자료: Bureau of Agricultural Statistics

<표 Ⅲ-3> 필리핀의 주요 곡물 수급현황

단위: 천 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쌀	총 공급량(A)	13,423	13,834	14,679	15,601
	연초 재고량	2,051	2,094	2,253	2,172
	생 산 량	9,550	10,024	10,621	10,997
	수 입 량	1,822	1,716	1,805	2,432
	연말 재고량(B)	2,094	2,253	2,172	2,639
	소 비 량(A-B)	11,329	11,581	12,507	12,962
옥수수	총 공급량(A)	5,515	6,593	7,066	7,124
	연초 재고량	191	204	177	173
	생 산 량	5,253	6,082	6,737	6,928
	수 입 량	71	307	152	23
	연말 재고량(B)	204	177	173	198
	소 비 량(A-B)	5,311	6,416	6,893	6,926

자료: Bureau of Agricultural Statistics

□ 무역현황

— 1986년 마르코스 독재가 무너지기 전 필리핀은 농지 소유에 제한이 없어 대농장이 많았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농의 기계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당시에는 쌀, 설탕, 옥수수 등의 생산이 내수를 초과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수출을 하였음.

<표 III-4> 필리핀의 주요 농산물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품 목 명	2006	2007	2008	품 목 명	2006	2007	2008
코코넛 오일	579	733	1,040	곡 류	1,048	1,139	2,585
바 나 나	405	401	397	유 제 품	448	637	697
참 치	136	204	377	동 물 사 료	403	480	602
파 인 애 플	221	247	253				
건 조 코코넛	139	159	240				
가공열대과일	129	149	147				
새 우	77	71	65				

자료 : National Statistics Office

— 필리핀의 주요 농산물 중에서 지리적 특성에 부합해 풍부하게 생산되는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파파야 및 감귤류 등이 주요 수출 품목임. 2008년 필리핀의 농산물 수출액은 코코넛 오일의 수출액 급증으로 39억 달러로 전년도 32억 달러에서 22.8% 증가하였음.

— 품목별로는 코코넛 오일, 바나나, 참치, 파인애플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필리핀 농산물의 최대

### III. 주요 산업

수입국가로 주로 코코넛, 파인애플, 참치, 설탕, 해조류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외에 일본, EU, 한국 역시 필리핀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들임.

- 1970년대에는 코코넛 오일 및 기타 코코넛 관련 품목들이 수출 품목의 2/3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 상황임. 코코넛 관련 품목과 더불어 설탕 또한 1970년대에는 필리핀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당시 수출량의 30%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필리핀은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쌀 자급률이 약 85%이고 수입이 약 15%를 차지함. 주요 수입 농산물은 쌀, 옥수수 등 곡물이며, 그 외 유제품과 동물사료 등도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음. 필리핀은 ASEAN의 주요 농업국 중에서 만성적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농산물 순수입국임.

<표 III-5> 필리핀의 농산물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수출	농 산 물	2,691	2,781	3,168	3,889
	전 체	41,255	47,410	50,466	49,078
	농산물/전체	6.5	5.9	6.3	7.9
수입	농 산 물	3,987	4,304	4,829	7,685
	전 체	47,418	51,774	55,514	56,746
	농산물/전체	8.4	8.3	8.7	13.5
수지	농 산 물	△1,296	△1,523	△1,661	△3,796

자료 : Bureau of Agricultural Statistics 및 National Statistics Office

## 다. 필리핀 농지개혁의 주요 내용

### □ 빈곤 퇴치와 농촌 개발

- 1960~70년대 녹색혁명을 선도했던 필리핀은 1990년대 이후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소홀과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서 2008년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 위기를 겪은 바 있음.
-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농업에 대한 지원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데, 이는 소농 및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업노동자들이 필리핀 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빈곤 퇴치 및 농촌 개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 ‘포괄적 농지개혁법’ 제정

- 필리핀의 빈곤 문제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발생한 토지 소유의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독립 후 여러 정권을 거치는 동안 지주와 농민들 간의 대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농지개혁 관련법 제정이 계속되어 왔음.
- 그 총체적인 결과물로서 1988년 6월 아키노 정권에 의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포괄적 농지개혁법(CARL)’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동법은 “토지의 공평한 분배 및 소유”를 목표로 토지 분배와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합하고, 생산 작물의 종류나 토지 보유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포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Ⅲ. 주요 산업

- 이에 따른 ‘포괄적 농지개혁계획(CARP)’은 토지 취득 및 분배를 통한 토지보유 개선, 토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창출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민 개발, 농지 소송 해결 등을 통한 농지정의 구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 ‘포괄적 농지개혁계획’의 성과 및 문제점

- ‘포괄적 농지개혁계획’은 토지보유 관계의 변화, 농장자산 및 인적 자본 투자 증가, 빈곤 감소, 소득 및 사회자본 향상, 사회적 대립 감소 등 여러 성과를 거두는 한편, 필리핀의 국가개발의제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반면, 농지개혁 과정에서 지주들의 저항 및 비협조, 토지 분배 및 소유권 문제,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의 부족, 토지 분배의 적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일부 사업이 아직 미완료된 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 ‘포괄적 농지개혁법’은 당초 시행시한이 1998년이었으나, 정부재원 부족으로 자금이 없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였고, 2008년까지 10년간 시한을 연장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 심화로 2008년까지도 계획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9년 8월에 시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시 5년간 연장하였음.

### 라. 필리핀 농업의 문제점

#### □ 열악한 농업 인프라

- 필리핀은 농업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여 1990년대 이후 관개수로

확충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가뭄 시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내 도로망 부족으로 인하여 내륙 운송비가 높아 농수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포괄적 농지개혁계획' 시행에 따라 소규모 농가 증가

- 1988년 '포괄적 농지개혁계획(CARP)'이 실시되면서 소규모 농가가 증가하였고, 영세한 농가는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농업이 후퇴되는 결과를 낳았음.
- 정부가 농기계 산업을 위한 육성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기계 제조업 육성보다는 농가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농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 농업 현대화 사업 부진

- 현 아로요 정부도 이전 정부에 이어 식량 확보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농업 진흥을 정부의 역점 분야로 지정하고, 라모스 정부 시절 통과된 농수산업 현대화법의 실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가시적 정책 집행이 의문시 되고 있음.

·동법은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계 및 종자 구입시 농민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장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정부가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에서 농민에게 대출해 주는 자금의 이자율이 시중 이자율과 다를 바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방자치 단체별 농기계의 대량

구입 등이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재정 부족으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 불가능

- 필리핀 헌법에 의하면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허용되지 않음. 단, 최장 50년간 장기 임차(25년간 연장 가능)를 할 수 있으나, 면적은 1,000ha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1991년 발표된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s of 1991)’에 따라, 외국인 소유지분이 40% 이내(필리핀 지분이 최소 60% 이상)인 법인은 사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

## 2. 에너지 산업

### 가. 에너지 수급현황

□ 필리핀의 에너지 소비량은 주변국에 비해 적은 편

- 필리핀은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주요국들 중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적은 편으로 2008년 에너지 소비량은 약 3,200만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 TOE)으로 추정되며, 필리핀의 1인당 소비량도 석유환산 기준으로 연평균 349kg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적음.

·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약 1억 1,100만 톤, 태국은 약 1억 100만 톤, 말레이시아는 7,000만 톤, 싱가포르는 약 5,300만 톤 등임.

## □ 가스 및 석탄 소비량 증가에 따라 석유 의존도 감소 추세

- 199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생산을 석탄 수입에 의존하면서 석유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필리핀 정부가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천연가스의 사용을 크게 늘리면서 석유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나. 에너지 정책 방향

### (1) 에너지 자립 목표

#### □ 201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60% 국내 생산 목표

-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필리핀 정부는 201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석유환산 기준으로 2004년 수입 에너지가 총 소비량 4,400만 배럴 중 2,200만 배럴로 약 50%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국내 생산량이 총 에너지 소비량의 55.7%로 최고를 기록하였음. 국내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경우, 2010년까지 필리핀 정부의 60% 에너지 자립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전력산업 개혁

□ 발전 및 송전설비의 민영화 추진

— 2001년 ‘전력산업개혁법(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EPIRA)<sup>2)</sup>이 제정됨에 따라, 전력부문의 규제 완화 및 민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필리핀 전력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영 독점기업이었던 National Power Corporation(Napocor)의 발전 및 송전설비의 민영화가 추진되어 왔음.

· 2008년 11월 필리핀 상원은 Napocor의 송전 시스템인 Transco의 25년 운영권을 2개의 필리핀 기업과 중국 State Grid의 컨소시엄 앞으로 수여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같은 달 2개의 발전소가 더 매각되면서 동법에 따른 전력시장 진입 개방 및 소매 경쟁 도입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Napocor의 루손 섬 및 비사야스 군도 소재 발전설비의 일부가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전력산업개혁법’에서 정한 목표인 민간 소유 70%를 넘어서게 되었음.

· 그러나 2009년 1월 프랑스 Suez Energy의 현지 자회사인 Emerald Energy가 600MW급 칼라카(Calaca) 발전소의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민간부문 앞으로 매각된 Napocor의 발전설비 비율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2) 공화국법 제9136호(Republic Act 9136)

- Napocor의 자산 매각을 보다 급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필리핀 정부는 동사의 채무 2,000억 페소(약 36억 달러)를 부담하였고, 2004~05년 중 일련의 전력요금 인상을 통해 동사의 영업손실을 축소시켰음.

#### □ 전 세계적인 신용 위기 및 자산가격 하락으로 민영화 지연

- 투자자들이 필리핀 정부가 진행중인 발전소 매각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전 세계적인 신용 부족 및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전력설비의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전력 시장의 완전 개방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전력산업개혁법’에 따라, 독립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가 계약에 의해 공급하고 있는 발전용량의 최소 70%를 민간 운영자 앞으로 이전한다는 목표가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3) 에너지원별 수급 및 개발현황

#### (가) 석유

#### □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 감소 추세

- 석유는 1990년대 중반 필리핀 총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는 여전히 필리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2007년 에너지 소비량의 약 1/3을 차지하였음.

### Ⅲ. 주요 산업

- 필리핀은 석유 순수입국으로 석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유 수입에 계속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스 및 석탄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국내에서 석유 필요량의 10%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7,640만 배럴의 원유(약 58억 달러)를 수입하였음. 그러나 2008년 기록적으로 높은 국제유가로 인하여 국내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었음.

#### □ 필리핀 국내 유전 개발 계속

- 미국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에 따르면, 2006년 1월 기준으로 필리핀은 1억 3,800만 배럴의 확인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말라파야(Malampaya) 심해 유전의 생산량 증가 덕분에 석유 생산량이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음.
- 동 유전에 대해 45%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영국계 Royal Dutch/Shell과 미국 Chevron이 2004년 석유 주변사업 개발권을 국영 Philippine National Oil Company (PNOC) 앞으로 양도한 이후 상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동 유전의 석유 매장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며, 총 석유 매장량은 2,500~4,000만 배럴로 평가되고 있음.

- 2008년 10월 팔라완(Palawan)섬의 북서 근해에 있는 갈록 (Galoc) 유전에서 석유 생산이 개시되어 20,000배럴/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석유 생산능력이 기존의 약 25,000배럴/일에서 두 배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갈록 외에도 2009년 말 인근 까들라오(Cadlao) 유전도 석유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동 사업은 호주 Blade Petroleum이 필리핀 현지기업인 VenturOil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약 8,200배럴/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갈록 유전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하나인 호주 Otto Energy는 팔라완 인근 지역에서 석유 탐사를 하기 위하여 영미계 광업회사인 BHP Billiton과 합작회사를 구성하여 2010년 시추를 시작할 계획이고, 미국 ExxonMobil은 2009년 중반부터 술루해(Sulu Sea)에서 유정 탐사를 위한 시추를 시작하였음.

#### □ 석유 수입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전망

- 2009년에도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과 세계 무역량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국제유가의 하락 및 경제 회복이 석유의 수입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2008년 10월 갈록 유전이 생산을 개시하였고 천연가스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필리핀의 석유 수입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III-6> 필리핀의 석유 생산 및 소비량 추이

단위 : 천 배럴/일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2011 <sup>f</sup>	2012 <sup>f</sup>
생산량	24.3	25.6	25.6	25.2	-	-	-	-	-
소비량	337.2	340.8	318.3	322.0 <sup>e</sup>	327.8	321.3	319.8	322.2	328.4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나) 가 스

□ 국내 가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

— 천연가스는 필리핀 발전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2007년 총 발전량의 31.5%를 차지하였으며, 2001년 말 필리핀의 최대 외국인투자인 45억 달러 규모의 말람파야 사업에서 가스 생산이 시작되면서, 필리핀 국내 가스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Royal Dutch/Shell 및 Chevron의 현지 자회사가 운영하는 동 사업은 약 765억 m<sup>3</sup>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2년 필리핀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말람파야 사업이 활동을 개시하면서 2001년 약 1억 4,000만 m<sup>3</sup>에서 17억 6,000만 m<sup>3</sup>로 12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후 연간 생산량이 31억 m<sup>3</sup>까지 증가하였음.

— 말람파야 해저 3,000m 아래에서 추출된 천연가스는 500km 파이프라인을 통해 루손 섬 북부에 있는 바탕가스(Batangas)시의 발전소로 수송되고 있음. 바탕가스 발전소는 필리핀 총 전력생산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람파야 외에도 비사야스 군도의 세

부 섬에 있는 소규모의 리베르타드(Libertad) 유전에서도 천연 가스를 공급받고 있음.

- 이외에도 몇몇 기업들이 가스 탐사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영국 Forum Energy는 팔라완 서부에 있는 Reed Bank에 세계적인 수준의 가스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Reed Bank에 있는 삼파귀타(Sampaguita) 가스전의 매장량은 말라과야 가스전보다 7 배 많은 5,660억 m<sup>3</sup>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제유가 하락, 세계적인 신용 부족 등으로 가스사업 추진의 어려움

- Forum Energy는 삼파귀타 가스전이 영해 분쟁중인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을 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석유 및 가스 탐사는 자본 집약적 사업으로 필리핀의 신규 유전 및 가스전 탐사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 국제유가 하락 및 전 세계적인 신용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소한 연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III-7> 필리핀의 가스 소비량 추이

단위 : 백만 m<sup>3</sup>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2011 <sup>f</sup>	2012 <sup>f</sup>
소비량	2,900	2,900	2,200	2,269	2,369	2,357	2,381	2,440	2,525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다) 석 탄

□ 석탄 소비량의 지속적 증가 및 높은 수입 의존도

- 필리핀은 3억 5,000만 M/T의 추정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소비량의 약 3/4를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지로부터의 수입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610만 M/T(약 2억 3,500만 달러)를 수입하였음.
- 필리핀의 석탄 수요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1,090만 M/T의 석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370만 M/T만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임. 석탄은 천연가스 다음으로 필리핀의 주요 전력원으로 총 발전량의 28.2%를 차지하고 있음.
- 필리핀의 유일한 주요 탄광은 서부 비사야스 군도의 세미라라(Semirara) 섬에 있는 파니안(Panian) 탄광으로 2008년 300만 M/T의 석탄을 생산하였고, 2009년에는 500만 M/T로 증산할 예정이며, 이 중 절반은 인도 및 태국으로 수출할 예정임.
- 2009년 석탄 수요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0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됨.

□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의 석탄 개발 추진

- 환경운동단체들이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할 것을 주장하면서 석탄화력 발전소 운영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필리핀 정부는 석탄 개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일부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가 향후 몇 년 내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수입 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국내 석탄의 사용을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10년 대통령 선거에서 환경보호론자로 유명한 로렌 레가르다(Loren Legarda)가 당선된다면 정책이 역전되어 화석연료 개발비용으로 재생 에너지원 개발을 장려할 가능성이 있음.

#### □ 광업법, 세계 광물가격 폭락, 세계적인 신용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 증가

— 파니안 탄광과 기타 소규모의 탄광 이외에 몇몇 기업들이 신규 석탄 매장지를 탐사하고 있음. 그러나 1995년 ‘필리핀 광업법 (Philippine Mining Act)<sup>3)</sup>’을 둘러싼 논쟁으로 인하여 필리핀의 국내 광업에 대한 사업의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2004년 1월 대법원은 외국인의 100% 채굴권 소유를 허가했던 법의 조항이 위법이라고 선언하였음. 동 판결이 11개월 후에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 환경단체 및 일부 국내 광업회사들이 외국인 채굴권 소유를 반대함에 따라, 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법적 논쟁에 계속 둘러싸여 있음.

— 한편, 세계 광물가격의 폭락 및 전 세계적인 신용 부족으로 인하여 탐사 작업이 중단되고 있음. 2008년 10월 영국 호주계 Dwyka Resources가 현금을 유보하기 위하여 민다나오 섬 남부에 있는 남부 코다바토(Cotabato) 산맥의 다구마(Daguma) 석탄 사업의 탐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3) 공화국법 제7942호(Republic Act 7942)

### Ⅲ. 주요 산업

· 다구마 사업은 석탄의 발열량이 필리핀 국내 사용 및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들 앞 수출용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보고된 후, 파니안 탄광과 견줄 만한 사업으로 여겨져 왔음.

<표 Ⅲ-8> 필리핀의 석탄 소비량 추이

단위 : 백만 M/T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2011 <sup>f</sup>	2012 <sup>f</sup>
소비량	9.1	10.7	10.1	10.9	11.2	11.1	11.2	11.5	11.8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4) 전력산업 현황

##### (가) 전력산업 동향 및 전망

#### □ 전력 공급 제약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둔화

- 필리핀 에너지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천연가스가 발전에 사용되는 주요 연료로서 2007년에는 거의 6만 Gwh에 이르는 총 발전량의 31.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석탄(28.2%), 수력(13.8%), 지열(17.1%), 석유(8.6%), 기타 재생 에너지(0.1%)가 차지하였음.
- 1990년대 초 발전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위하여 피델 라모스 정부가 전력부문에 개혁을 도입한 이후 필리핀의 전력 수요가 증가해 왔음. 그러나 발전소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한 전력 공급의 제약으로 전력 수요 증가율이 최근 5년간 둔화되었고, 2009년에는 경제 침체로 전력 수요가 10년 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 및 ‘전력산업개혁법(EPIRA)’에 따른 발전소에 대한 투자 증가로 전력 수요가 2010년에는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1년부터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력부문 자유화의 결과로 전력시장 진입이 개방되면, 전력 공급자간 경쟁 심화에 따른 전력요금 인하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민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전력 부족 지속 전망

- 민다나오 전력망은 이미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루손과 비사야스 전력망은 향후 공급 부족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Napocor의 민영화로 인해 전력부문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발전용량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신용 부족의 결과로 자금조달이 어려움에 따라 발전소에 대한 투자 계획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음.

#### (나) 원자력

#### □ 원자력 발전소 재개를 위한 법안 제출

- 필리핀은 현재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Mark Cojuangco 하원의원이 전에 연기하였던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음. 동 사업은 수도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음.

### III. 주요 산업

·1976년 당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국 Westinghouse에게 620MW급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하여 1984년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완공하였으나, 마르코스 대통령의 후임자인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발전소 가동 개시에 반대하여 운영되지 못하였음.

·정부 변호사가 계약의 대가로 마르코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 수 천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Westinghouse를 고소하였고, 환경운동단체들은 동 발전소가 일부 지질학적 단층선에 근접한 나티브 산(Mount Natib) 화산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 환경 보호론자들을 포함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동 법안을 지지함에 따라, 2009년 3월 하원 세출위원회가 동 발전소의 재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 페소(약 220만 달러)의 지급을 승인하였음.

<표 III-9> 필리핀의 전력 소비량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2011 <sup>f</sup>	2012 <sup>f</sup>
총 소비량 (억 kwh)	459	469	470	493	506	505	515	541	569
1인당 소비량 (kwh)	532	533	526	542	546	535	537	555	574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다) 대체 에너지

### □ 대체 에너지 개발 투자 및 교토의정서 CDM 참가

- 필리핀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선진국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 참가하고 있음.

###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열 에너지 생산국

- 상업적 규모의 지열 발전은 필리핀에서 1979년 시작되었고, 2007년경 지열 발전설비 용량이 거의 2,000MW에 달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열 에너지 생산국이 되었음.
- 지열 발전설비는 현재 필리핀의 발전설비 용량의 약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향후 10년에 걸쳐 지열 발전용량을 3,100MW로 증가시켜 필리핀을 세계 최대 지열 생산국의 위치에 올리려고 함.

### □ 수력, 풍력, 태양열 등 다양한 에너지 활용 노력

- 수력은 발전용량이 3,300MW로 필리핀의 총 발전설비 용량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가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태양과 풍력 등 두 가지 대체 에너지는 현재 전국 발전설비 용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Ⅲ. 주요 산업

- 향후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 12월 필리핀 정부는 풍부한 세계 및 기타 인센티브들을 제공함으로써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Act)’<sup>4)</sup>을 통과시켰음.

#### (5) 에너지 산업 전망

##### □ 향후 경제회복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증가 예상

- 필리핀의 향후 5년간(2009~13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9%로 이전 5년간의 경제성장률 평균 5.7%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증가율도 낮아져 2009~13년간 에너지 소비량이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낮은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은 2008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국제유가에 이어 2009~10년 2년간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 둔화에 따른 것으로 2010년에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되면 에너지 소비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세계적인 신용위기 및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

- 필리핀 정부가 전력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발전 및 송전설비의 매각, 전력시장 개방 등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신용위기 및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민영화 계획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4) 공화국법 제9513호(Republic Act 9513)

— 또한 석유 및 가스 탐사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나 세계적인 신용 경색 상황에서는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일부 탐사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필리핀의 부족한 전력 공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3. 금융산업

#### 가. 금융산업 현황

##### □ 인접국들에 비해 금융산업 미발달

— 필리핀의 금융산업은 2008년 기준 총 GDP의 약 5.5% 규모로 개발이 부진한 상태이며, 필리핀의 금융자산은 2008년 총 GDP의 232.5%로 인접국인 싱가포르 827.6%, 말레이시아 527.4%, 태국 28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III-10> 주요국의 GDP 대비 금융자산 비중

단위 : %

국가명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필리핀	243	248	232	248	254
미 국	868	892	904	858	876
일 본	1,168	1,220	1,251	1,197	1,252
중 국	480	486	500	525	552
독 일	744	757	734	816	843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Ⅲ. 주요 산업

- 2008년 12월 기준 필리핀에는 38개의 상업은행, 77개의 저축은행과 6,400개 이상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영업중이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약 98%가 전당포에 해당함.

#### □ 소매금융의 부진으로 대출잔액의 대부분이 기업금융

- 2008년 9월 기준 상업은행의 소매금융 대출잔액은 3,450억 페소 (약 72억 달러)로 은행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소매금융의 발달이 부진한 편임.
- 소매금융 성장이 더딘 주요 요인은 필리핀의 낮은 소득 수준으로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2008년 필리핀의 1인당 GDP는 약 3,425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싱가포르 43,110달러, 말레이시아 14,100달러, 태국 8,290달러, 인도네시아 3,880달러와 비교해서 낮은 수치임. 평균소득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낮은 편임.
- 소매금융의 미발달로 인해 기업금융이 전체 대출잔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2008년 말 기준 제조업 부문의 대출잔액이 총 은행 대출잔액의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농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이 각각 15.9%, 14.5%, 11.7%를 차지하였음.
- 최근 몇 년간 높은 경제성장과 낮은 이자율에 힘입어 대출액이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경기가 둔화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보류하는 등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대출잔액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표 III-11> 필리핀의 금융부문 대출 및 예금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총 대출액	346	429	456	473	499
단기 대출	135	168	179	185	195
장기 대출	210	261	277	288	304
총 예금액	919	1,134	1,200	1,239	1,303
당좌 예금	109	135	144	150	158
저축성예금	810	999	1,056	1,090	1,145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부실채권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 확대 전망은 불투명

- 1997~98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필리핀 은행들은 대출잔액 대비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을 꺼리고 대신 리스크가 낮은 국공채에 투자해 왔음.
- 그러나 2002년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부실채권정리법(Special Purpose Vehicle Law)’을 도입하여 특수목적 자산관리회사 앞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왔으며, 2006년 4월에는 동법상 부실자산 양도 허용 기간을 2년 연장하였음.
- 이로 인해 부실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1년 말 총 대출액의 약 19.4%에 이르던 부실채권 규모가 2008년 11월에는 총 대출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933억 페소로 감소하였음.

### Ⅲ. 주요 산업

—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최근 세계적인 신용 경색으로 인해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대출액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외국계 은행의 국내영업 개방 제한이 금융산업 발전 저해

—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필리핀의 최대 은행은 2007년 5월 Banco de Oro와 Equitable PCI Bank의 합병으로 탄생한 Banco de Oro Unibank로서 2008년 9월 기준 710조 3,500억 페소의 자산규모를 기록하였으며, 700개의 지점과 1,200개 이상의 ATM기를 보유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606조 5,200억 페소의 자산을 보유한 Metropolitan Bank and Trust Company(Metrobank)가 두 번째로 큰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표 Ⅲ-12> 필리핀 주요 외국계 은행 현황

단위 : 억 페소

은행명	자산 규모	필리핀 내 순위
Citibank	1,938	9위
HSBC	1,295	13위
Standard Chartered	664	17위
Bank of America	109	33위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1995년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영업을 허용하기 전까지 44년 동안 미국 Citibank와 Bank of America, 영국 HSBC와 Standard Chartered Bank 등 4개를 제외하고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영업을 전면 금지한 것이 필리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원인으로 분석됨.
- 그 외에 2008년 말 기준으로 독일 Deutsche Bank, 일본 Mizuho Corporate Bank, 호주 ANZ Banking Group, 대만 Chinatrust Commercial Bank 등을 비롯해 총 17개 외국계 은행이 영업 중이나, 아직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현지은행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임.

#### □ 낮은 국민소득, 정치 불안, 세계 금융위기 등 불리한 주식시장 여건

- 1990년대 초중반 이머징마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 자유화 및 민영화 추세 등의 영향으로 필리핀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이 1997년 1월 890억 달러로 1992년 말에 비해 약 6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2002년 2월 시가총액이 455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이후 2004년 5월 아로요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각종 경제개혁 추진 등에 힘입어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타기 시작하여 2007년 말에는 총주식자본금이 1,03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시가총액이 급락하였으며, 낮은 국민소득, 정치 불안,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있음.

### Ⅲ. 주요 산업

- 2009년 3월 중반 필리핀 주식시장(Philippine Stock Exchange: PSE)의 시가총액은 687억 달러로 연간 GDP의 약 40% 수준이며, 필리핀 주식시장은 동남아에서 베트남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규모임.
- 외국인투자자들도 필리핀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참여가 다소 제한적임. 거래되는 주식 중 'A'군으로 분류되는 주식은 필리핀인들만 거래가 가능하며, 외국인투자자들은 약 40%에 해당하는 'B'군 주식의 거래만 가능함.

## 나. 전망 및 시사점

### □ 금융산업 발전에 제약요소 상존

- 필리핀의 금융산업은 인접국들에 비해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편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필리핀 정부의 관리 하에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꾸준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금융산업도 조금씩 성장하는 추세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필리핀의 1인당 소득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며,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경기 둔화로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1인당 GDP가 2008년 3,425달러에서 2009년 3,324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로 인해 1인당 가처분소득도 802달러에서 649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III-13> 필리핀 GDP 및 가처분소득 추이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GDP	억 달러	2,721	2,992	3,174	3,134	3,234
1인당 GDP	달러	3,041	3,285	3,425	3,324	3,373
가처분소득	억 달러	550	643	743	612	605
1인당 가처분소득	달러	615	706	802	649	631

주 : GDP는 구매력평가지수 기준임.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또한 빈곤층의 비율이 높아 신용카드를 비롯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의 폭이 넓지 않으며, 은행산업이 주로 수도인 마닐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 필리핀 금융산업의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세는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국내 송금액은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임. 2007년 기준 필리핀의 해외근로자 수는 약 107만 명으로 이들의 국내 송금액은 총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144억 달러이며, 동 송금액 관련 수수료는 필리핀 은행들의 주요 수입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가계소득의 증가는 소매금융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JP Morgan은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약 30%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송금액이 미국의 경제위기 영향을 받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필리핀 해외근로자들의 인력이 고급화 추세를 보이며 급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 필리핀 근로자



의 국내 송금액은 16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음.

## 4. 정보통신 산업

### 가. 정보통신 산업 현황

#### □ 낮은 유선전화 보급률

- 필리핀의 유선전화 보급률은 2008년 말 기준 인구 100명당 4대로 싱가포르 41대, 말레이시아 16대, 베트남 13대, 태국과 인도네시아 10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유선전화 보급률은 최근 몇 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유선전화 보급률과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필리핀에서는 무선통신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표 III-14> 필리핀 유·무선 통신시장 규모

구 분	단 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유선통신 회선 수	백만대	3.7	3.9	4.2	4.3	4.4
유선통신 회선 수 (100명당)	대	4.1	4.3	4.5	4.6	4.6
무선통신 가입자 수	백만명	41.9	55.9	69.3	81.8	91.5
무선통신 가입자 수 (100명당)	명	46.9	61.3	74.8	86.8	95.5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 무선통신시장의 높은 성장세

- 무선통신시장은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2005년 이후 연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말 기준 서비스 가입자 수가 2005년의 약 2배에 달하는 6,9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2008년 말 100명당 가입자 수가 74.8명으로 싱가포르 144명, 말레이시아 95.5명, 태국 92.2명에 비해 적지만, 베트남 73명, 인도네시아 54명보다는 높은 수준임.
- 국영 전화회사인 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PLDT)가 독점해오던 통신산업은 1994년 통신시장 자유화 이후 Smart, Globe Telecom, Islacom, Extelcom 등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음.
- 그리고 1999년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GSM) 방식이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자전송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와 통신요금 연체 방지를 위한 선불요금제가 도입되면서 무선통신 수요가 증가하여, 현재 필리핀의 무선통신산업은 필리핀 정보통신산업 중에서 가장 성장이 빠르고 유망한 분야임.
- 문자전송 서비스(SMS)는 저렴한 비용 덕분에 필리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로 인해 Smart는 전체 수익의 약 53.9%를 문자전송 서비스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보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얻는 수익이 더 많은 유일한 기업임.

□ 3세대 정보통신 사업권 매각

- 2005년 휴대전화기기를 통해 동영상, 인터넷 접속 등을 지원하는 3세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사업권 매각이 이루어짐으로써 동년 12월, Smart, PLDT, Globe Telecom, Digitel and Connectivity Unlimited Resources Enterprises 4개사가 사업권을 획득하였음.
- Bayan Telecommunications도 동 사업권을 획득하고자 했으나, 사업권 획득을 위한 최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5번째 사업권 매각은 보류된 상태임.

□ PLDT와 Globe Telecom이 사실상 시장을 양분

- 필리핀 정보통신시장에는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유무선통신시장 모두 사실상 PLDT와 Globe Telecom에 의해 양분되고 있음. PLDT가 유선통신시장의 선두업체로 2007년 기준으로 53.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 Digitel, Bayan, Innove(Globe Telecom의 자회사)가 각각 12%, 9.6%, 8.4%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음.
- 무선통신시장에서는 Globe Telecom이 선두업체로서 2007년 기준 39.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에 PLDT의 무선통신부분 자회사인 Smart가 35.6%, Piltel과 Digitel이 각각 16.9%, 7.8%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음.

□ 높은 서비스 이용료와 인프라 미비로 인터넷 보급률은 낮은 편

— 필리핀은 높은 서비스 이용료와 PC 및 유선통신망 등 인프라 미비로 인해 주변국들에 비해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편임. 2008년 말 기준으로 필리핀에서는 1,340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100명당 14.4명 수준으로 싱가포르 69.3명, 말레이시아 30.8명, 베트남 26.1명, 태국 17.1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III-15> 필리핀의 인터넷 이용자 추이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인터넷 이용자 수	천 명	10,068	12,057	13,391	14,661	15,853
인터넷 이용자 수 (100명당)	명	11.3	13.2	14.4	15.6	16.5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천 명	613	1,038	1,520	2,043	2,598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100명당)	명	0.7	1.1	1.6	2.2	2.7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필리핀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PC 구매율이 높지 않아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이 가정이나 직장이 아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2004년 말 기준 인터넷 카페는 약 1만 4,000여개로 PC 15대 이상을 설치한 중간규모는 5,000여개, 1~2대 등 소규모는 9,000여개임.

· 2009년 1분기 인터넷 이용자의 약 71%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했으며, 인터넷 카페가 총 인터넷 사용시간의 약 47%를 차지하였음.

<표 Ⅲ-16> 필리핀의 PC 보급 추이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PC 대수	천 대	4,458	4,903	5,483	6,145	6,892
PC 대수 (100명당)	대	5.0	5.4	5.9	6.5	7.2
PC 대수 증가율	%	8.0	8.1	9.9	10.2	10.3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그러나 도시지역의 인터넷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필리핀의 22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현황을 조사한 AC Nielsen-Yahoo Net Index Report에 의하면, 2008년 필리핀 도시인구 3,500만 명 중 인터넷 이용자는 약 28%에 해당하는 980만 명이었는데, 이것은 2007년 23%보다 높아진 수치임.

—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약 70%가 10~29세 사이의 인구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용도가 높아 20세 이하 인구의 50%, 20~29세 인구의 41%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젊은 연령층이 필리핀 인터넷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성장 잠재력이 높아 시장규모 증가세

— 필리핀은 아직 인터넷 보급이 초기 단계로 보급률이 낮은 편이나, 문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영어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보급이 확산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점진적으로 사용 인구가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PLDT의 무선인터넷 부문 자회사인 Smart Bro는 2008년 1~9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한 31억 페소(약 6,46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전년 동기대비 가입자 수가 57% 증가하면서 총 가입자가 473,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2008년 3분기에만 6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였음.
- PLDT의 유선인터넷 사업부문인 Digital Subscribe Line (DSL)의 2008년 1~9월 중 수익도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한 39억 페소를 기록하였으며, Globe Telecom 또한 무선인터넷 이용자 급증에 힘입어 2008년 4분기에만 5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2008년 가입자 수가 234,000명을 기록하였음.

## 나. 정보통신 산업 전망

### □ 인터넷 사용자 증가 전망

- PC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보급률이 낮아 3세대 휴대전화의 저소득층에게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PC 보급률이 상승할 경우 인터넷 사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국가통신위원회(NTC)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필리핀에는 488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250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인터넷 사용요금이 인하되면서 broadband 이용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3월 기준으로 broadband 이용자가 967,600명 정도로 추정됨.

### Ⅲ. 주요 산업

- 통신회사들 사이에서도 컨버전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필리핀의 대표적 케이블 TV회사인 Sky Cable과 Home Cable이 케이블선을 이용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IT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

- 필리핀 정부는 IT 인프라를 개선하고 IT 21 계획(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Plan for the 21st Century)을 실행하는 한편, 영어 사용이 가능한 양질의 노동력과 IT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필리핀을 IT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astwood City, Fort Bonifacio, Filinvest 등 마닐라의 IT 단지들은 IT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Smart Communications와 Global Telecom은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5. 소매유통 산업

### 가. 일반적 특징

#### □ 주요 아시아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큰 소매시장 보유

- 필리핀은 2008년 1인당 가처분소득이 802달러로 베트남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 아시아 지역의 주요 소매시장 중 하나임.

- 2008년 필리핀의 소매 판매액은 2007년도 6,190만 달러 대비 22% 증가한 7,55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와 태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소비재 시장임.
- 도·소매업은 2008년 기준 GDP의 15%를 차지하는 필리핀 경제의 중요한 부문으로 2008년 10월 기준 전체 노동인구 3,450만 명 중 18.9%인 약 650만 명이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임.

<표 III-17> 필리핀의 소매 판매 증가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소매 판매액	433	515	619	755	610	620
식료품 판매액	269	316	378	469	385	395
비식료품 판매액	164	198	241	287	225	225
소매 판매량 증가율	3.7	4.3	5.3	7.6	-15.1	0.8
소매 판매액 증가율	13.6	19.0	20.3	22.0	-19.3	1.6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 소규모 가게가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소규모 상인들이 현지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매업자들의 95% 이상이 소규모 상점의 거래상 또는 소유주이며, 이들이 전체 소매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5개 대형 소매업체의 소매시장 점유율은 30%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필리핀의 최대 소매업체는 SM Prime Holdings의 소



### III. 주요 산업

매업 부문인 SM Investment로 SM Supermarket과 SM Department Store 등 소매점 체인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 전년 대비 15.6% 상승한 2억 9,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었음. 그 외에 JG Summit Holdings의 Robinsons 프랜차이즈, Ayala Corporation 등이 있음.

·SM Prime Holdings는 3개 백화점의 신규 개장을 추진하여 2009년 하반기까지 필리핀 전국에 총 면적 4,900만 m<sup>2</sup>의 36개 쇼핑몰을 보유한 메머드 쇼핑몰 운영업체로 거듭나게 됨. 또한, 2009년에 16개 슈퍼마켓과 5개 하이퍼마켓이 SM 백화점 내 또는 독립형으로 설립될 예정임.

— 개별 유통업자들이 2008년까지도 필리핀 소매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했으나, SM과 같은 대규모 유통판매업체의 성장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소매업자는 필리핀의 기존 전통적인 가게들의 영향으로 무점포 소매업자보다 천천히 성장할 것으로 보임.

#### □ 식료품 및 음료가 유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

— 2008년 식료품이 소매 판매액의 6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필리핀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일반적으로 빈곤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식료품 및 필수품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몇 년간 식료품 및 음료, 담배에 대한 지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며,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2004~08년 동안 평균 11.1%씩 증가하였음.

- 2009~13년간 소매 지출 증가율은 가처분소득의 감소 및 가계예산의 긴축으로 이전 5년의 연평균 증가율의 절반 미만인 연평균 5.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식료품 및 소비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

- 필리핀은 식료품 순수입 국가로 쌀, 유제품, 과일 및 채소류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재의 수입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필리핀 페소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외국산 제품의 페소화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게 됨.

· 필리핀 통계청(NSO)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소비재의 수입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6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나. 투자환경

#### □ 외국인 투자는 제한적

- 2000년에 ‘소매업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Law)<sup>5)</sup>’이 통과됨에 따라 1954년 ‘소매업국유화법(Retail Trade Nationalization Act)’이 폐지되었으며, ‘소매업자유화법’에서 소매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동법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최소 750만 달러의 순자본금으로 현지 소매점에 대해 100%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5) 공화국법 제8762호(Republic Act 8762)

### Ⅲ. 주요 산업

2002년 3월부터 100% 소유권 취득을 위한 최소 순자본금이 250만 달러로 축소되었음.

-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가 요구하는 사전자격 조항들에 따르면, 외국인 소매점의 모기업은 순자산이 최소 2억 달러(소매시장의 사치품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는 5,000만 달러)이어야 하고, 소매업 실적은 5년이어야 함. 또한 필리핀 상품이 외국 소매점 상품 재고의 최소 30% 또는 사치품 소매업의 경우 최소 10%를 구성하고 있어야 함.
- 정부의 시장 자유화 추진과 영국 테스코(Tesco), 프랑스 까르푸(Carrefour), 미국 월마트(Walmart) 등 유수의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소매업 부문에는 여전히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 홍콩 재벌기업인 Hutchinson Whampoa 계열의 AS Watson Group이 필리핀 재벌기업인 SM Investment와 합작투자로 필리핀 소매업 부문에 진출한 몇 안 되는 외국기업이며, SM은 네덜란드 SHV Holdings와 현금판매 체인 Makro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음.

## 다. 전 망

### □ 필리핀 소매업 부문 성장세 지속 전망

- 필리핀의 소매시장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2004~08년 동안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있음.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유통산업 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은 물가로 인하여 구매력이 감소된 것으로 보임.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소매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민간소비가 필리핀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시장 및 해외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2010년 이후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소매유통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밝을 것으로 전망됨.

#### □ 해외 브랜드 및 외국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도시 중산층의 소비 증가와 지불수단 및 유통수단의 기술적 향상으로 소비가 더욱 촉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소매부문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특히, 수도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계층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외국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중산층 소비문화의 영향으로 대형 쇼핑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등이 필리핀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인터넷 소매시장의 성장

- 필리핀의 인터넷 소매시장 규모는 연간 2억 5,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8%대의 성장을 보이는 등 전망이 매우 밝은 편

### Ⅲ. 주요 산업

임. 최근 인터넷 쇼핑에 필수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인터넷 이용료도 저렴해짐에 따라 인터넷 소매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인터넷 소매업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이 가장 유망한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젊은 계층의 급속한 증가와 이들의 인터넷 이용 및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한 제품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터넷 소매업체의 단위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터넷 소매업체들이 인터넷 쇼핑의 대중화와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데서 기인한 것임.
- 아울러 인터넷 소매업의 활성화는 신용카드의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인터넷 소매업은 필리핀의 마닐라, 세부, 다바오(Davao) 등 대도시의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점차 중소도시, 중하류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인터넷 소매업체로는 아마존(Amazon)이 있으며, 2007년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르고 있고, 필리핀 인터넷 판매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 체인업체의 성장

- 직접 판매와 인터넷 소매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체인업체의 성장속도가 무점포 판매를 앞지르고 있음. 홈쇼핑, 인터넷 소

매 등과 같은 판매경로의 높은 가격, 결제의 안정성, 상품의 질 등의 문제가 무점포 판매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매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인업체는 성장하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상점 개선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전망이다. 한편, 소득의 증가와 소비자의 선호 변화로 인해 식품 소매업보다 비식품 소매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소매업자유화법(Republic Act No. 8762) 전문

제1조(명칭) 본 법률은 2000년도 “소매업자유화법”이라 칭한다.

제2조(법률 공포) 본 소매자유화법은 필리핀 소비자를 위한 가격 인하,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증진, 소규모 제조업의 활성화, 경제성장의 촉진 및 필리핀 상품 및 서비스의 범국가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생산투자 장려 법안이다.

이 법률안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 필리핀 소비자를 위해 보다 낮은 가격,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통한 보다 나은 서비스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내국인(필리핀인)과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필리핀의 소매업을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자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매업이란 대중에게 소비용 상품, 재화를 지속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행위 및 업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a) 제조업자, 가공업자 또는 작업자 또는 인부가 대중에게 자기가 직접 제조, 가공 또는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되 자본금이 100,000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b) 농부 또는 농업전문가가 자신의 경작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 c) 자본금에 관계없이 호텔 또는 숙박업소 소유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나, 이 음식점이 숙박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d) 자본금에 관계없이 제조업자가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에 대해서만 단일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2) '고가 또는 사치품'이란 생활필수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고소득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사치품에는 보석, 고가 브랜드 또는 디자이너의 의류 및 신발류, 의상 레저 및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필리핀 국적을 상실한 내국인(필리핀인)의 처우) 필리핀 국적을 상실한 필리핀 출생의 필리핀 거주 국민의 경우 이 법률에 의거 필리핀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을 허용한다.

제5조(외국인 지분 참여) 필리핀 법률에 의해 조직된 외국인 소유의 합자회사, 조합, 법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공부(DTI)에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 소유의 개인사업자 혹은 하기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소매업에 투자할 수 있다.

A군 -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의 기업은 필리핀 국민에게만 국한해 허용되고 필리핀 국민이 100% 소유한다.

B군 -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및 그 이상에 상당하는 기업체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60%로 한해 2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다.

C군 - 납입자본금 75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외국인이 100%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B, C 군에 있어서 한 업체를 설립하는 투자금액은 83만 달러 이상이어야만 한다.

D군 - 고가 또는 사치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한 업체당 납입자본금이 25만 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이 100%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금 회수 및 운영 중단 의사를 증권거래위원회와 상공부에 보고하지 않는 한, 상기 명시된 최소 납입자본금 전액을 필리핀에 유치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외국인의 기존 소매업자들의 주식분배에 의한 주식 취득)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 소매점이 상장사이트 아니든 배당받은 주식의 순자산이 2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이 법률안이 발효된 이후 2년 내에 업체의 전체 자본 중 최대 60%를 취득할 수 있으며 여기 명시한 바와 같이 허용 가능한 외국인 출자와 같은 기존의 비율을 취득한다.

제7조(주식의 매각) 외국인 지분 80% 이상의 B, C군에 있는 모든 소매업자는 운영 개시 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그들 지분 30%를 필리핀 증권시장에 매각해야만 한다.

제8조(외국인 소매업자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떠한 외국인 소매업자도 소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

a) B, C군에서의 모기업 순자산은 2억 달러가 되어야 하고, D군의 모기업 순자산은 5,000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

b) 외국 프랜차이즈나 외국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모기업이 되는 외국회사가 보유한 한 매장의 순 자산가치가 2,500만 달러가 되지 않을 경우 5개 이상의 소매지점 또는 해외점포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c) 5년의 소매업 경력

d)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필리핀인의 소매업자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국가 외국인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개인만이 필리핀에서 소매업을 할 수 있다.

상공부는 모든 외국인 소매업자에게 필리핀에서 사업을 허가하기 전이 법령의 영향을 받는다.

상공부는 필리핀에서 영업 가능한 외국인 소매업자들의 기록을 보관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소매업의 모회사가 이 법률조항에 명기된 자본금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9조(국산 제조 물품의 장려) 본 법령 시행 이후 10년간 B, C군에 속하는 외국인 소매업자의 제품 30%와 D군의 제품 10%는 필리핀 제조품으로 한다.

제10조(유자격 외국인 소매업자의 금지 행위) 유자격 외국인 소매업자는 허가된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동물(이동할 수 있는 장치), 이동 매장이나 손수레, 영업판매 대리인, 가정방문 판매, 음식점이나 소규모 식료품점 등과 같은 기타 유사 소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행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공부가 추후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11조(규제 감독기관) 외국인 소유의 개인사업체, 합자회사, 조합, 법인의 소매업 관련 규제 감독은 상공부 소관이다. 여기에는 법적 분쟁에 대한 조정도 포함된다. 상공부는 증권거래위원회, 국가경제개발청(NEDA),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함께 법령 승인 후 90일 이내 이 법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규칙들을 제정, 발표한다.

제12조(제재조항) 본 법률안을 위반하는 자는 6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 페소 이상, 200만 페소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조합, 합자회사, 법인의 경우 제재조치는 위반 책임이 있는 조합원, 대표이사, 이사, 경영자에게 부과한다.

만약 위반자가 필리핀 국민이 아닐 경우, 형을 마친 후 즉시 추방 조치된다.

만약 위반자가 공직에 있을 경우 형은 상기에 명시된 것과 같으며 즉시 직위 해제 및 파면 조치한다.

제13조(폐지조항) 공화국법 제1180호에 따라 폐지한다. 모든 법률, 대통령령, 명령, 규칙 또는 이 법률조항과 모순되는 부분은 공화국법 제3018호에 따라 폐지한다.

제14조(분리조항) 만약 이 법률조항이 위헌일 경우 실행중인 법령의 다른 조항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15조(효력) 이 법률안은 최소 필리핀 일간지 2곳에 승인, 공표된 15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Manuel B. Villar, Jr. 하원의장  
Blas F. Ople 상원의장

주 : 필리핀 법령 소매업 관련 법안 제8762호의 번역본  
자료 : KOTRA(일부 재정리)

## 6. 자동차 산업

### 가. 자동차 산업 현황

#### □ 자동차 산업 부진

- 필리핀의 자동차 시장 및 산업은 ASEAN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작고 수출량도 적은 편이며 조립공장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동차 생산부문의 경우, 현지 조립 생산업체들은 대부분 외국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조립공장이며, 2008년 기준으로 필리핀 내에 공장을 설립하여 진출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상용차 공장 라인 20개, 자동차 부품공장 25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국내에 수출용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을 장려하고자 ‘자동차 개발 프로그램(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 상용차가 자동차 판매의 60% 이상 차지

- 필리핀에서는 주로 다용도차(utility vehicle), 경상용차(light commercial vehicle), 대형버스와 같은 상용차가 자동차 판매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8년 기준 필리핀의 승용차 보유 현황은 1,000명당 9.3대로

승용차의 보유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 필리핀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인도네시아가 1,000명당 26대인 것과 비교하면 ASEAN 국가들 중 거의 최저 수준으로 파악됨.

— 그러나 상용차 및 대중교통용 차량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자동차 보유 비율이 1,000명당 30대로 증가함. 자가용 보유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낮은 소득 수준, 열악한 도로 인프라 및 도로망, 애프터 서비스 미비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됨.

<표 III-18> 필리핀의 자동차 보유 현황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승용차	1,000명당 대수	대	8.9	9.1	9.2	9.3	9.4	9.4
	등록대수	천 대	35.6	38.5	40.9	44.4	37.5	37.8
	등록대수 증가율	%	5.2	8.1	6.2	8.5	-15.6	0.8
상용차	등록대수	천 대	51.9	62.9	76.9	80.0	68.9	68.3
	등록대수 증가율	%	5.1	21.3	22.3	4.0	-14.0	-0.8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 2008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08년 5월까지 지속된 고유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전체 필리핀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용차 판매량은 4.0% 증가하여 전체 판매량의 약 64.3%를 차지하였고 승용차 판매량은 9.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Ⅲ. 주요 산업

- 자동차 판매량 증가 요인으로는 필리핀 현지 자동차 가격이 기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필리핀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필리핀 국내소비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최근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판매회사들의 판촉활동도 활발해져 자동차 구매가 과거보다 쉽게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동차 시장 침체

- 2008년까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필리핀 자동차 시장은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필리핀 자동차제조업협회(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 CAMPI)와 트럭제조업협회(Truck Manufacturers Association: TMA)가 발표한 월별 자동차 판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2009년 2월 자동차 판매실적은 전년대비 4.7% 감소한 9,027대로 나타남. 그 중 상용차의 판매대수가 전년 동월대비 7.7%나 급감한 5,865대에 그쳐 판매 급감을 주도하였음.

## 나. 자동차 시장 동향

#### □ 시장경쟁 현황

- 필리핀 자동차 시장규모는 연간 10만 대 수준으로 현재 토요타

(Toyota), 미쓰비시(Mitsubishi), 혼다(Honda), 이쓰즈(Isuzu) 등 일본 차가 필리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토요타가 2009년 약 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미국 포드(Ford)의 판매도 양호한 편이고, 한국 차는 현대자동차가 최근 시장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감에 따라, 2008년 4월 기준으로 포드를 판매대수 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한국 차가 판매 호조세를 보이면서 향후 자동차 수출과 더불어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등의 판매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07년 6월 1일자로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관련 제품의 수출 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다.
- 많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필리핀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치루이(Chery)와 Futon이 새로운 공장 설립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리판(Lifan)이 필리핀 공장 설립 및 판매 계획을 발표하였음. 중국 자동차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타사에 비해 낮은 편임.

#### □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리핀 자동차경쟁력협의회 결성

- 2010년까지 단일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ASEAN의 움직임에 따라, 필리핀 자동차 산업은 아시아 시장 확대와 함께 태국 등 강력한 경쟁국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게 됨.

### III. 주요 산업

- 이에 따라, 2009년 토요타, 혼다, 포드, 미쓰비시 등 필리핀 소재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회사들은 필리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향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필리핀 자동차경쟁력협의회(Philippine Automotive Competitiveness Council Inc.) 결성을 발표하였음.

#### □ 경유 엔진을 대체연료로 전환 장려 정책 시행

- 필리핀 정부는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변동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경유 택시 및 버스 엔진을 LPG, CNG 또는 다른 대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엔진 전환에 2,2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으로 약 1만 대의 택시 및 버스들이 보다 저렴하고 깨끗한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7. 보건·의료산업

### 가. 일반적 특징

#### □ 낮은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필리핀의 의료비 지출은 낮은 편으로 2008년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인 69 달러였으며, 이는 태국 및 말레이시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주요 의료시설도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정부는 필리핀 보건 상황을 개선하고 의료 혜택 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하지만 정부의 보건 재정지출 확대 계획은 정부재정 적자 축소 방침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향후 도시 인구 증가, 수명 연장,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지출의 비중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표 III-19> 필리핀의 의료비 지출 현황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의료비	총 지출 백만 달러	3,455	4,115	5,251	6,394	6,274	6,577
	총 지출 /GDP %	3.5	3.5	3.6	3.8	3.9	4.1
	1인당 지출 달러	39	46	58	69	67	69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 국영병원이 규모 및 시설 면에서 민간병원보다 앞서

- 2005년 기준으로 필리핀에는 954개의 병원이 있으며, 이 중 약 62%인 595개가 민간이 소유한 병원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국영 공공병원이 규모나 시설면에서 민간병원보다 훨씬 크고, 입원실 개수도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필리핀 건강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hilHealth)이 국가 보건 및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병원을 규제하고, 병원 설립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병원 수 확대를 관리하고 있음.

## 나. 의약품 시장 및 생산 동향

### □ 다국적 기업이 의약품 생산의 80% 차지

- 필리핀 제약시장은 2008년 기준 연간 20억 달러 정도 규모로 필리핀 현지에서 제조된 외국기업의 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유니랩(Unilab) 등 현지 제약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상당수가 다국적 기업들의 브랜드로 대부분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며, 소매단위 포장까지 갖춰진 형태임.
- 일부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제품이나 원료가 별크로 수입된 후, 현지 의약품 제조공장들에서 소매단위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거나 포장되는 것들임. 현지 의약품 생산이 대부분 이러한 하청생산(toll manufacturing) 방식으로 생산되는데, 제3자 브랜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약품을 제조함.
-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필리핀 소재 주요 제약회사는 미국의 와이어스(Wyeth), 브리스톨-마이어 스킵(Bristol-Myers Squibb: BMS), 애벗 래버러토리스(Abbott Laboratories), 화이자(Pfizer), 셰링 플라우(Schering Plough),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샤프 앤 돔(Sharp & Dohme), 영국의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laxoSmithKline)과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등이 있으며, 그 외 독일 및 스위스, 프랑스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 □ 의약품 판매는 증가 추세

— 2004년 이후 필리핀의 의약품 판매 실적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으나, 세계경기 침체로 인하여 2009년에는 판매가 감소되었다가 2011년부터 예전 수준의 판매량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I-20> 필리핀의 의약품 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2011 <sup>f</sup>	2012 <sup>f</sup>	2013 <sup>f</sup>
의약품 판매액	1,269	1,300	1,300	1,400	1,201	1,204	1,221	1,348	1,600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 저렴한 의약품 가격 유지 정책

— 다국적 기업이 필리핀 의약품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필리핀의 의약품 가격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음.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서민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복제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08년 4월 ‘저가의약품법(Cheaper Medicine Bill)’<sup>6)</sup>을 승인하였음.

·동법은 본래 서민층이 질 좋은 의약품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비싼 오리지널 약 대신 복제약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약

6) 공화국법 제9502호(Republic Act 9502)

### Ⅲ. 주요 산업

품 가격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어 제약업체가 수익 악화 및 매출 감소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

- 전체 51개 회원사 중 외국 제약회사가 약 70%를 차지하는 필리핀 보건협회(Philippine Healthcare Association)도 명목상으로는 정부와 함께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서민들의 의약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
- 국영기업인 필리핀 국제무역회사(Philippine International Trading Corp.: PITC)는 저가 의약품 수입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키스탄이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등장하였음.
- 이러한 동향을 감안할 때 필리핀 의약품 및 의료시장은 정부의 저가 의약품 보급을 위한 노력으로 향후 5년간 321억 달러 규모로 약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약품 산업은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저가 의약품 보급 노력으로 인하여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 제품 유형별 판매 및 유통 현황

- 필리핀에서의 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한 판매, 영양제품,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OTC)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성 비율은 각각 69%, 24%, 7%임. 특히, 자가 치료 및 아동 치료제의 수요 증가로 OTC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의약품의 판매경로는 기본적으로 약국이 80.1%로 가장 많으며, 이 외에 병원(9.7%) 및 다른 유통경로(0.2%)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
- 주요 의약품 유통업체는 가장 큰 규모의 Mercury Drug, Zuelling Pharma, Metro Drug 등 3개 회사이며,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이 3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됨. 이 중에서도 Mercury Drug는 가장 독보적인 의약품 판매채인으로 필리핀 전역에 걸쳐 700여개의 약국을 보유하고 있음.

## 다. 의료관광산업 현황

### □ 의료관광시장 규모 및 전망

- 의료관광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2007년 600억 달러에서 2010년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2007년 미국의 대 필리핀 의료관광객들은 약 75만 명에 달했으며, 의료서비스에 약 21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17년경에는 1,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 의료관광에 나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들의 의료비 지출액도 300억~800억 달러에 달하여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 의료관광 유치 목표로 St. Luke's Taguig 개원

- 필리핀 최고 의료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St. Luke's Taguig가

### III. 주요 산업

2005년 2월 착공하여 2009년 말 개원될 예정임. 이 병원은 2개의 주요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상하고 있는 금융산업 중심지인 Makati Business District, 다른 하나는 국제의료 관광시장을 겨냥하고 있음.

— St. Luke's Taguig는 필리핀에서 최고 수준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3~06년간 2번에 걸쳐 국제의료 기관평가위원회인증(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으로부터 세계 최고 병원으로 공인을 받은 필리핀의 유일한 병원임.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Bonifacio Global City)에 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 2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600개의 병상, 374명의 의사, 1,265대의 주차시설, 10개의 병원부설 연구소, 신경외과, 간질환, 안과, 정형외과 및 스포츠 의학, 임상병리학, 폐질환, 소아과 등 18개의 수술실, 5개의 제왕절개 실 및 분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1,150만 달러의 의료관광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필리핀 의료관광산업의 강점

— 가장 큰 장점은 최고의 시설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연수를 받은 의료진 등 높은 수준의 조건들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의료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임.

—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한데, 필리핀 Asian Hospital은 아시아에서 최고급 의료 관광시설을 갖춘 병원의 하나로 평가되는 태국의 Bumrungred Hospital과 파트너십을 수립하여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있음.

- 이외에 통합 의료서비스의 제공 면에서도 Asian Hospital은 종합검진과 다양한 외과수술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겪어야 하는 오랜 대기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음.
- Asian Hospital은 비용절감 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품격 외과기술과 안과 및 치과 치료시스템을 갖추고, 주요 병원 및 의료시설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내용을 의료관광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필리핀 정부 정책

- 의료관광에는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주도형’과 해외여행상품에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관광부가형’이 있는데, 필리핀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후자에 속함.
- 이미 필리핀 정부는 1970년대 동아시아의 의료 허브를 지향할 목적으로 필리핀 허브센터와 국가 폐의학 센터, 중앙 신장이식 센터와 같은 우수한 센터들을 설립한 바 있음.
- 또한 필리핀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워 필리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St. Luke's는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 필리핀 경제지대청(Philippines Economic Zone Authority: PEZA)에 의료관광단지 지정 및 등록을 추진하고 있음.

### Ⅲ. 주요 산업

- 필리핀은 보건의료산업을 필리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 산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과 의료서비스가 치료 위주에서 벗어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필리핀이 국경을 초월한 고부가 보건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선진화와 아낌없는 투자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임.

